

5)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옳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보기>

- ㄱ.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 목적이다.
- ㄴ. 사법적 형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범죄 예방 효과에 있다.
- ㄷ. 사형 제도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 ㄹ.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선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같은 긍정, 옳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다 골라.

갑: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정의의 원칙을 정할 때 우연성을 배제해야 하는가?
- 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가?
- ㄷ.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가?
- ㄹ.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7)

18 다음 주장에 담긴 정치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桀)과 주(紂)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음이다. 그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음이다. 천하를 얻는 것에 도(道)가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을 것이다.

<보기>

- ㄱ.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도덕성을 중시한다.
- ㄴ.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 ㄷ. 백성의 주권을 인정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강조한다.
- ㄹ.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20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 사회는 한민족이 국수와 국물처럼 주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이주민 문화는 비주류로서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을: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 그릇처럼 각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해야 하는가?
- ② 각 민족이 지닌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③ 문화 통합을 거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가?
- ④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
- ⑤ 소수의 주변 문화를 중심 문화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9)

10 (가) 사상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명명한 것이 없으나 항상 늘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잘되게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면서도 주재하지 않는다.

			(A)				
	(B)						

(나) [가로 열쇠]
 (A) :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휘하여 이상을 실현하는 것
 (B) :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다.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 ②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이다.
- ③ 자체의 목적을 가지면서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 ④ 본질적으로 정신적 존재인 인간과는 달리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다.
- ⑤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성 실현을 위해 간접적 의 무만을 지니는 대상이다.

10)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3점]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 이상의 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정의에도 반하고, 사회 계약의 본질과도 상반된다. ... (중략) ...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에게 새로운 해약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국가의 전쟁 행위와 같다.		v	v			v
형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커야 한다.					v	v
형벌은 사회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v				v
사형은 종신 노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크지만 사회 계약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16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선을 가지는 실체들에게 부여되는 가치로서 동등한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다.
 을: 평등은 도덕적 이념이지 사실에 대한 단언이 아니다. 인간과 동물 종(種) 간 실질적인 능력 차이가 그들의 필요와 이익에 대한 차등적 배려를 정당화할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병: 동물과 인간의 몸은 자동 장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이나 생리 현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성적 영혼은 인간의 사유에만 관여할 뿐이다.

- ① 갑이 을에게: 동물과 달리 식물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② 갑이 병에게: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을이 갑에게: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모르고 있다.
- ④ 을이 병에게: 동물도 인간처럼 이익 관심을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병이 을에게: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위배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2)

6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신은 사람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 주셨다. 사람은 충실한 직업 생활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을: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매뉴팩처의 분업은 개별 노동자를 기형적 불구자로 만들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 때문에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보기

- ㄱ.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게 노동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ㄴ. 직업 생활을 통해 신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다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직업으로 얻어진 사적인 재화의 축적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ㄹ.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7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며,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種)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을: 어떤 개체가 인지,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선호와 복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들은 삶의 주체이다.
 병: 지각력이 없으나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특징은 그 존재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내재적 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Legend: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의 입장

Flowchart description: A box labeled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leads to a diamond 'A'. From 'A', a path goes to '갑의 입장'. Another path goes to a diamond 'B'. From 'B', a path goes to '을의 입장'. From 'B', another path goes to a diamond 'C'. From 'C', a path goes to '병의 입장'. From 'C', another path goes to a diamond 'D'. From 'D', a path goes to '병의 입장'.

보기

ㄱ. A: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정신적으로 정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ㄷ. C: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는 종이 아닌 개체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ㄹ. D: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

17 갑 사상은 긍정, 을 사상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적어도 적정 수준의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며, 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원조의 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을: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은 윤리적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를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이를 죽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절대 빈곤한 이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이들을 도와야 한다.

- ① 원조 대상의 결정은 빈곤국의 인권 상황과 무관한가?
 ② 원조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③ 원조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에 두어야 하는가?
 ④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시행되어야 하는가?
 ⑤ 원조를 자선의 차원이 아닌 윤리적 의무로 수용해야 하는가?

15)

11 다음 사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책임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래는 나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기

ㄱ.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실존적 권리에 대해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지는가?
 ㄴ. 전통적인 윤리학은 시공간을 넘어 모든 미래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가?
 ㄷ. 미래 세대는 현세대의 행동이 초래한 불행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있는가?
 ㄹ. 책임의 범위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수레바퀴가 계속 도는 것처럼 중생은 죽은 뒤 그 업에 따라서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반복한다.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오고가는 것은 무명과 애욕에 가려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을: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다. 진인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다.

보기

ㄱ. 갑은 죽음 이후에는 현세에서의 업이 모두 소멸된다고 본다.
 ㄴ. 을은 죽음을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ㄷ. 갑은 음과 달리 열반에 이르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자연 순환의 일부인 생사를 구분하여 죽음을 피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골라!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공동의 정의관에 바탕하여 부정의에 저항함으로써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불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기

- ㄱ. gaps은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의 변화를 호소하는 정치 행위라고 본다.
- ㄴ. eul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ㄷ. gaps은 다수의 정의관에서, eul은 개인의 양심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찾는다.
- ㄹ. gaps, eul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은 정의라는 상위의 가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본다.

18)

20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의 초점이 경제 성장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생명을 구하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원조는 절대 빈곤 상태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반드시 더 나은 제도의 수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현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

- ① 해외 원조의 목적을 빈곤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 확립에 두어야 한다.
- ② 절대 빈곤 상태의 사람들을 돕는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해외 원조는 결과와 무관하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 ④ 해외 원조의 대상자는 개인의 형편이 아닌 국가 경제력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 ⑤ 해외 원조의 실행자가 원조로 인해 얻는 고통은 원조 대상자가 얻는 이득을 넘지 말아야 한다.

19)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모략을 일삼는 자가 되지 말라.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혜의 소유주가 되지 말라. 무궁한 도를 철저히 터득하여 무(無)의 경지에 노닐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하여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 따름이어야 한다.

- ①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해 얻은 지식은 관계적·상대적이다.
- ② 만물이 하나라는 지혜와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③ 나와 너의 대립을 해소하고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주변 환경에 본심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만물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쌓아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20)

5 gaps, eul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gaps: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물질적 필요와 같은 생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의 차원을 충족할 수 있는 자족적인 공동체이다. 사물의 본성이 그 사물의 최후 형태 또는 궁극 목적의 실현을 의미하듯, 자족적인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그 궁극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선의 단계이다.

eul: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중시되는 순간은 충성의 원인이 이익이 중시되었을 경우이다. 물론 우리의 습관으로 발생하는 충성의 책임이 얼마간 지속될 수는 있다. 하지만 원인이 중시된 상태에서 그런 책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없다. 따라서 어떤 국가 내지 통치자로부터 공적 유용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 지속될 경우 사람들은 충성의 의무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gaps은 정치적 복종의 근거를 명시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② gaps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계약으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비롯된다고 본다.
- ③ eul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④ eul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 ⑤ gaps, eul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고 본다.

21)

13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콜버그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것이며, 발달도 달리 묘사될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도덕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의 충돌을 들 것이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식적·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서사적인 사고방식을 들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정의 윤리는 여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	✓		✓	
정의 윤리는 남성 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을 소홀히 다룬다.		✓		✓		✓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여성성을 형성한다.				✓	✓	✓
공감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정의 윤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2)

19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윤리 규범은 장기적인 집단의 생존과 조화를 위해 단기적인 이기적 충동을 억누르도록 우리를 추동합니다. 윤리 규범은 이와 같이 작용하며 우리의 유전자를 증식시키기 때문에 진화한 결과입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윤리 규범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윤리 규범이 객관적이라는 환상은 인간을 도덕 규약에 복종하게 만들고, 이는 생식의 성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기

- ㄱ. 이기심의 억제는 초월적 존재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이다.
- ㄴ. 인간의 생존이나 번식과 무관한 윤리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ㄷ. 윤리 규범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 ㄹ. 객관적 윤리 규범의 강조는 진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19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분배적 정의를 모색한다. 두 가치가 서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적절히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다른 가치들을 얻기 위해 경제력이나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원적 평등 체제와 반대된다.

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서 사람들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는 데 합의한다. 그리고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합의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운명의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방식이며 이들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정의롭다.

- ①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의 분포가 사회의 공유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 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 ③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음을 알아야 한다.
- ④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하며 최소 국가를 지향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⑤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24)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각각의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며, 만약 돈으로 성직을 살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돈은 시장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분배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	✓		✓	
분배의 대상인 재화의 특수한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
분배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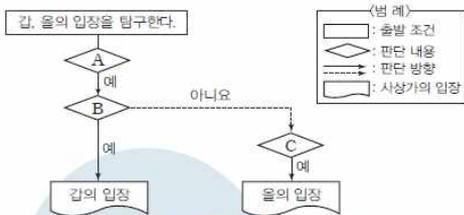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5)

갑: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은 그것에 선행하는 물음인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다. 내 삶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선을 탐구하고 덕을 실천해야 한다.
 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나 혼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낼 수 없으며, 나의 행동을 정당화해 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원칙도 찾을 수 없다. 나는 배려의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7052-0197

7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인간의 사회성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② A: 도덕 판단을 할 때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가?
- ③ B: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하는가?
- ④ B: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관심의 차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가?
- ⑤ C: 보편화 가능성을 지닌 도덕적 원칙의 정립을 추구해야 하는가?

26)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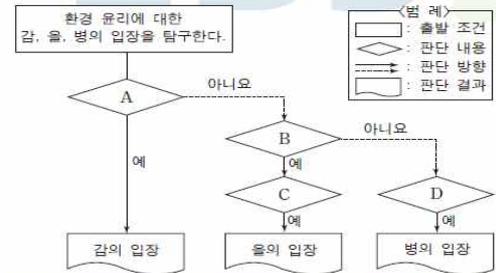
자연은 인간이 만든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즉 자연은 사람들이 전쟁과 대립, 그리고 극단적 군비 확장을 통해 무수한 황폐함과 몰락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연맹을 맺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몰고 가는 것이다. 이는 당장에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시민적 공동체의 조정에 의해, 외적으로는 공동 협정과 입법을 통해 결국에는 현실화되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개별 국가의 주권이 폐지되면 세계 평화가 달성된다고 본다.
- ② 국제 연맹은 강대국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뿐이라고 본다.
- ③ 정치를 인간의 이성이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영역으로 본다.
- ④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⑤ 영원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7)[주관식] 골라.

갑: 감각과 목적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도덕적 권리를 갖는 개체들은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갖는 실재이다. 이러한 실재들은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를 가리킨다.
 병: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이 그 온전함에 의존한다면, 그 구성원들에게는 존속할 자격이 있다.

(나)



보기

- ㄱ. A: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ㄴ. B: 생태계 보전은 개별 생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인가?
- ㄷ. C: 생명체는 인간의 이익관심과 관계없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 ㄹ. D: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무생물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8)

20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원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잉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편향성은 과소비를 해 가면서 아이의 모든 욕구를 들어 주고, 그로 인해 최빈국의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의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을: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평등,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로운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 ① 갑: 해외 원조와 국내 원조의 도덕적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 ② 갑: 원조 의무는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된다.
- ③ 을: 원조의 여부와 내용 선택은 공여자 재량에 맡겨야 한다.
- ④ 을: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룬 빈국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⑤ 갑, 을: 원조는 전 지구의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실천되어야 한다.

29)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다. 폴리스는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위해 구성된다. 인간만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진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지만, 재산의 향유는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인간이 국가로 결집하고 정부 아래로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① 갑: 정치적 존재인 인간에게 최선의 삶이란 정치 공동체에서 가능하다.
- ② 갑: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 ③ 을: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는 입법 권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④ 을: 상호 계약에 의해 형성된 인공적 인격인 국가에 대한 저항권은 부정된다.
- ⑤ 갑, 을: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의 기능을 해야 한다.

30)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개별 유기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 애쓴다. 을: 삶의 주체란 믿음, 욕망,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쾌고의 감정과 정서, 욕망을 추구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병: 생태적 안정성과 온전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은 것이고,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른 것이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법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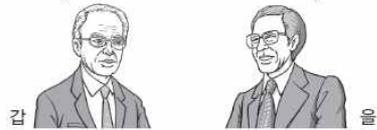
- ① A, F: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의식적 활동을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B: 개체들의 군집(群)과 환경이 그물망처럼 서로 긴밀한 관계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B, D: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C, E: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와 공동체 자체가 존중의 대상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E: 모든 동식물의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임을 간과하고 있다.

31)

10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원조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조는 개인과 최소 수혜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원조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① 갑: 원조는 도덕적 선의지의 문제이므로 효율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원조는 국가나 비정부 단체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는 자연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여 지구적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④ 을: 원조의 목표를 개인의 복지가 아닌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에 두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에 의한 부권주의적 간섭은 적정 수준의 정부를 갖춘 사회에 대해서만 정당화된다.

32)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이므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이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을: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기본적 가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인가?
- ② 갑: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과의 불평등이 해소될 때 실현되는가?
- ③ 을: 분배적 정의의 원칙은 가상의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해야 하는가?
- ④ 을: 정치권력과 공직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 ⑤ 갑, 을: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위한 보편적 기준은 응분의 몫과 필요인가?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9

33)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성향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p> <p>을: 우리는 지각,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도덕적 권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p> <p>병: 우리는 대지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보기

- ㄱ. A, F: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ㄴ. B, E: 비이성적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ㄷ. C: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ㄹ. D: 생명이 없는 개체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4)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어떤 국가도 그 활동에서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없다.
- ②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종교적 이상주의도 모든 집단 간의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 ④ 인간의 본성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 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35)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하였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기

- ㄱ.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는가?
- ㄴ.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한가?
- ㄷ. 이상적 담화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한 규범들은 모두 보편타당한가?
- ㄹ.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답론이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6)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혼 안에 있는 원자들의 운동 때문에 감각이 생겨난다. 영혼이 계속 존재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감각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해된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영혼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된 물체이다.
- ㄴ. 죽음 이후에 고통은 육체에 머무를 수 없다.
- ㄷ.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 ㄹ.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몸은 더 이상 감각을 소유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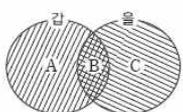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프로테스탄트에게 노동은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신의 은총을 확신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됨으로써 노동자의 금욕적 자세를 심화시켰다.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는 이러한 금욕적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을: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기계화의 확대와 분업에 의해 자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트가 직업 노동을 신이 부과한 명령으로 여겼다고 본다.
- ② 갑은 프로테스탄트가 직업 노동을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의 자기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을 할수록 노동자의 가치가 저하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부가 노동을 통해 증대된다고 본다.

38)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하며, 오직 동해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시민 사회가 해체되더라도 살인범은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을: 형벌의 잔혹성은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형벌의 지속도가 인간 정신에 큰 영향을 주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범죄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보기

ㄱ. A: 사적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ㄴ. B: 범죄자의 형벌은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한다.
 ㄷ. B: 형벌은 범죄로 사회에 야기된 손해를 헤아려 내려져야 한다.
 ㄹ. C: 사형은 시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잔혹한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9)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약탈자가 되고 침략자가 되며 공격자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해야 한다.

보기

ㄱ. 갑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군주의 권력이 피치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본다.
 ㄷ. 을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다고 본다.

40) 골라.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영속적으로 불행을 당하고 있는 자를 대하는 것은 본보기로 처형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사형은 보는 이를 개선시키기보다는 강박하게 만든다.
 을: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보기

ㄱ. 갑: 노역형은 구경꾼보다 수형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ㄴ. 갑: 사형은 신중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닭에 유해하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피해가 예방할 피해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41) 플라.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보기>

- ㄱ. 고통받는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의 조정이 원조의 목적은 아니다.
- ㄴ. 원조를 제공하는 사회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 대상국에 충고와 강제력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 ㄷ.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적·사회적 문화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ㄹ. 질서 정연한 만민은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울 의무를 지닌다.

42)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동등하게 가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복잡한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생명을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족주의일 수 없다. 그런데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 비교되고 있는 이익이라는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슷한 논의에 종족, 인종, 성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의식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이익은 이익이며, 그 이익이 인간의 이익이든 동물의 이익이든, 자의식적인 동물의 이익이든 그렇지 않은 동물의 이익이든 간에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인간과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② 인격체의 생명을 비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생명의 가치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④ 고통의 정도가 같다면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43)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제를 이루려면 안도감과 평화를 주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이 외부 세계와 싸우고 지쳐서 돌아와 심신의 긴장을 풀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이 과정에는 특정한 공간적 조건이 필요하다. 인간은 거주자일 때만, 공공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인간은 그 과정에서 위험에 내던져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과제를 완수하고 난 뒤에는 집의 보호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한다.

- ① 인간은 외부와 단절한 채로 집의 보호 속에 안주해야 한다.
- ② 인간은 거주함을 통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인간에게는 세상의 공격에 맞서 견고한 방벽이 되어 줄 집이 필요하다.
- ④ 인간은 집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탱하는 든든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과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4)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폭력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의한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을 저지하는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 의도적이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폭력이 '사건'이라면 구조적 폭력은 '과정'이고, 문화적 폭력은 상당 기간 '장기 지속'되는 것으로 다른 폭력을 용인한다. 이러한 폭력은 폭력의 삼각형을 형성하며, 폭력의 삼각형 어느 지점에서나 시작해 어느 방향으로나 흐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 ①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 폭력적 수단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 ② 기본적 생존을 침해하지 않는 억압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없다.
- ③ 한 사회의 특수한 관습은 물리적 폭력의 정당화에 사용될 수 있다.
- ④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폭력은 평화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⑤ 폭력은 항상 물리적 폭력에서 시작해 문화적 폭력으로 확대된다.

45)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최소한 몇몇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다.</p> <p>을: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p> <p>병: 대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를 인정한다.</p>
(나)	

- ① A: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에는 정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A, C: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됨을 모르고 있다.
- ③ B: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C, E: 자연 존중의 태도로 생명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D, F: 생태계 자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46) 풀라.

8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 ㉡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四肢)를 지닌 것처럼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으며[良知]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良能].</p>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은/는 나와 한 몸과 같은 존재[同氣間]인 형제자매 간에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지켜야 할 덕목이다. • ㉡ 은/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쳐 아버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완성되는 덕목이다.

보기

- ㄱ. ㉠은 장유(長幼)의 구별 없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 ㄴ. ㉡은 상대방의 자애로움[慈]에 보답하는 조건적 의무이다.
- ㄷ. ㉠은 천륜(天倫) 관계에서 봉양과 양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 ㄹ. ㉠은 ㉡의 실천 방법으로 인간다움[仁]의 실현에 기여한다.

47)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평화 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 구출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으며, 평화 연맹이라 불리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을 필요로 한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하며, 한 국가 자신과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보장하는 데에만 상관한다. 영구적 평화를 위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기초해야만 한다.

보기

- ㄱ.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처럼 대우받아야 한다.
- ㄴ. 평화 연맹은 공화 정체 국가들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된다.
- ㄷ. 국제법의 유지와 실행을 위해 세계 국가의 형성이 필요하다.
- ㄹ.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유예로 달성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48)

1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범죄자가 사형을 당할 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는 사회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며,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p> <p>을: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의 법칙은 정언 명령이다.</p> <p>병: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은 살인범의 처형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살인범이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p>
(나)	

보기

- ㄱ. A: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닌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ㄴ. B: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 ㄷ. C: 형벌은 사회 계약에 따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ㄹ. D: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해 부과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9) 플라.

6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화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킵니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이 공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 공화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연맹적 통일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 연맹을 떠날 수 없게 하고 국제법의 이념을 좇아 자유 상태를 확보하게 하며, 결국 이러한 종류의 결합이 점차 강화될수록 연맹은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 ㄱ.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하는가?
- ㄴ. 국제법 체제하의 국가들은 자국 방어를 위한 평화의 권리를 갖는가?
- ㄷ. 전쟁의 위협이 있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맹의 확산이 요청되는가?
- ㄹ. 평화 조약으로 국가 간 전쟁이 종식되면 영구적 평화 상태의 실현이 보증되는가?

50) 플라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 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을: 사형에 처할 만큼 중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이 사람은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병: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보기

- ㄱ. 을: 살인자는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이므로 국가와 더불어 존립할 수 없다.
- ㄴ. 병: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있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지켜질 수 있다.
- ㄷ. 갑과 을: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ㄹ. 갑과 병: 살인자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없다.

51)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람은 달성될 기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을: 모든 사람이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 공동 사회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한다.

(나)

- ① A: 자연 상태가 언제라도 전쟁 상태로 변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상태를 통해 소유권이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③ A: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이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자연 상태의 평화 유지를 위해 자연권을 양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자연 상태로의 복귀는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때만 가능함을 간과한다.

52)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협동적 진리 탐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한다.
-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즉 타당성에 기반하여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타당성은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담론 참여자의 자격을 공직자와 행정 전문가로 제한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들의 선호를 모두 배제할 때 타당한 규범이 도출된다.
- ③ 비강제적으로 수용된 보편타당한 규범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담론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 ⑤ 담론의 참여자들은 다수가 합의한 규범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

53)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딱딱나무는 비록 뿔감으로 쓰이지만 생태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존재의 삶을 위한 자원이자.

을: 개나 말의 주인에 대한 봉사에 관해 주인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간접적 의무이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병: 어떤 포유동물은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특성을 소유한 삶의 주체이다. 이러한 개체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가)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이성적 존재 외에도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는가?
- ② A: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B: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 개체들에게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 ④ C: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는가?
- ⑤ D: 내재적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 중 일부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가?

54) 골라.

갑: 사람은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덕이 없으면 가장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탐욕과 무절제한이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하다. 사람은 국가의 정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 정의를 정치 공동체가 실현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을: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준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개인의 국가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 ㄴ. 갑: 인간의 좋은 삶은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ㄷ. 을: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지닌다.

55) 골라.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 원칙들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그것들이 평등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며, 최초의 상황은 순수하게 가상적인 것이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가)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각자의 천부적 재능은 응분의 자격에 의한 정당한 몫인가?
- ㄴ. B: 무지의 베일의 당사자들은 사회 조직의 기초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가?
- ㄷ. B: 각자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가?
- ㄹ. C: 소유 자격이 있는 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되는가?

56) 골라.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정의에 반하며, 사회 계약의 본질과도 상반된다.

을: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가)

(나)

<보기>

- ㄱ. A: 범죄자로부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 ㄴ. B: 살인자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 ㄷ. B: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형벌의 남용은 안 된다.
- ㄹ. C: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57) 골라.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 ㄱ. A: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부정의한 법을 바꾸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가?
- ㄷ. C: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경도가 아닌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ㄹ. C: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하는가?

58) 골라.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식물이나 동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반면에 돌은 그렇지 않다. 돌에는 고유의 선이 없다. 야생 생명체의 선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행동할 때에만 자연을 존중하는 진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을: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물이나 대지도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장하는 것이 대지 윤리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보기

- ㄱ. 갑: 야생 생명체의 선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의 한 측면이다.
- ㄴ.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모든 개별 유기체는 인간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 ㄷ.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린 것이 아니다.
- ㄹ. 갑과 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 불가능하다.

59)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잘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못하는 나라에도 수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도 또한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해야 한다. 누구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 ① 갑: 원조 대상국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없다.
- ② 갑: 원조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도록 행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만민이 지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없다.
- ④ 을: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권고와 강제력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원조 주체가 반드시 막대한 부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60)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쾌고 검수 능력은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든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을: 생명 중심 관점은 자연 존중의 태도를 정당화한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병: 대지 윤리는 생태학적 도덕의식의 존재를 반영한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합리적인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힘을 깨달아야 한다.

- ① A, F: 이성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유정적(有情的) 존재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인간이 생명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D: 생태계의 온전성이 개별 유기체의 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인간을 위한 경제적인 자원으로 동물을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61) 플라.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을: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발 도상국 국민층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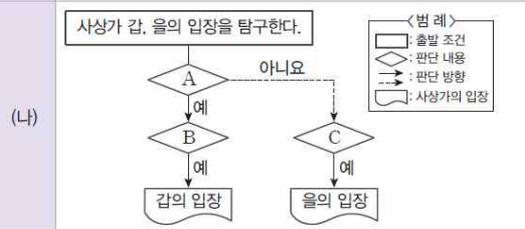
보기

- ㄱ. 갑: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ㄴ. 갑: 자유와 평등이 미확립된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을: 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원조의 직접적인 목적은 절대 빈곤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62)

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즉 불복종할 이유가 복종할 이유보다 우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을 계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의 실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 ㄴ. A: 독재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효율적인 저항 수단인가?
- ㄷ. B: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의 부정적인 정도에 달려 있는가?
- ㄹ. C: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63)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필연적 행위이다. 내가 뜻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 나는 물론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다.

을: 도덕적 의무에 대한 감정과 독립적으로 두 가지 쾌락 중에서 어떤 한 종류의 쾌락을 확실하게 더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고등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과 만족을 혼동하지 않으며, 불완전하더라도 고등 능력을 발휘해서 얻을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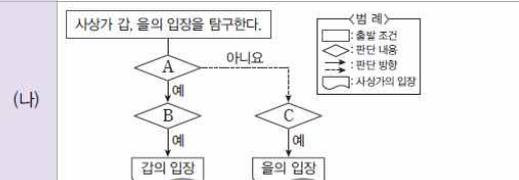
- ① 갑: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없다.
- ③ 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뛰어난 쾌락만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는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64)

7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해 권한을 갖지만,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각자의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천부적 재능의 활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면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잘 발휘한 사람도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정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을: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분배와 관련하여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결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물들이 무(無)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자연적 자산과 그것에서 산출한 모든 것은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보기

- ㄱ. A: 타고난 능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없는가?
- ㄴ. A: 천부적 재능의 발휘로 얻는 이익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ㄷ. B: 경제적 불평등이 심할 경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저해될 수 있는가?
- ㄹ. C: 자신의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지 못할 수 있는가?

65)

9 갑 사상이가 을과 병 사상이 모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에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의 엄격성을 형벌이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형벌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중신 노역형에 비해 적다는 점에 비추어 유용하지 않다.

병: 살인을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살인자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사회 계약을 파괴한 자로서 국가의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 ① 생명 처분권을 양도할 사람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② 형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형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살인자는 도덕적 인격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함을 간과한다.
- ④ 사형은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권리가 있음을 간과한다.

66)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육체는 늙고 노쇠하면 마땅히 사멸하는 과보(果報)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요한 열반을 구해야 한다.

을: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 ① 갑: 죽음은 삶에서 비롯되므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② 갑: 깨달음을 통해 삶의 번뇌가 모두 소멸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 ③ 을: 죽음은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어 불멸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을: 모든 사람 중에 죽음을 가장 덜 두려워하는 사람은 철학자이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사유도 할 수 없다.

67) 어떻게 푸는지 알지? 적절한 것 1개 고르면 됨.

(가)	<p>갑: 국가란 신의(信義) 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사람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전쟁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p> <p>을: 인간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의 재산 보존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그 권력은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된다.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 그 신탁은 철회될 수 있다.</p> <p>병: 사회 계약이란 각자가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적 자유 대신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p>
(나)	

- ① A: 생명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했음을 간과한다.
- ② B: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해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인간은 국가 속에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6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

종교에서 인간이 자신의 두뇌의 산물에 의해 지배되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인간은 자신의 손의 산물에 의해 지배된다. ... (중략)...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이고, 산 노동에 대한 죽은 노동의 지배이며,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이다. 결국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보기>

- ㄱ. 자본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 ㄴ.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본질 실현이 가능하다.
- ㄷ. 자본주의에서 분업에 의해 노동자의 생산성과 자율성이 향상된다.
- ㄹ.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 수단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이다.

69) 풀라.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p> <p>을: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들은 마치 다른 존재들을 위한 자원처럼 대우받아야 하는 안 된다. 삶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해악이 다른 존재들이 얻는 이익들의 총합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p> <p>병: 대지 윤리는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 존속할 권리를 가지며,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p>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병만의 입장</p> <p>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ㄱ. A: 인간에 대한 의무 외의 다른 도덕적 의무는 없다.
 ㄴ. B: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
 ㄷ. C: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다.
 ㄹ.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있다.

70) 풀라.

3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 만이라도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을: 성(聖)을 끊고 지(智)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나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들이 있지 않게 된다.

보기

ㄱ. 도(道)를 따라 살려면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ㄴ.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는가?
 ㄷ. 인이 아닌 법(法)과 형(刑)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ㄹ. 성인(聖人)이 되려면 덕을 지니도록 수양을 해야 하는가?

71)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원조의 의무와 관련된 원칙은 국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 국제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적이고 적절한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다.

을: 원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벵골인인지가 나에게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① 갑: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된다.
- ② 갑: 인권을 보호하고 의사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을: 원조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이므로 그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해외 원조와 국내 공공 부조의 도덕적 차이를 고려하여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72)

1 (가), (나) 윤리학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규범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 규칙 외에도 도덕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지식도 알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원리를 근거로 문제의 실천적 해결 방안의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
- ② (가): 도덕 진술의 논리적 구조나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
- ④ (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도덕적 품성 탐구에 집중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정립에 집중해야 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73)

2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모든 소통 행위가 공통적인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론 및 담론과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소통의 적절성은 수용되고 반박되는 의사소통적 타당성 요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의 소통은 발언의 이해 가능성, 진술의 진리성, 언어 행위의 정당성, 표현의 진실성이라는 타당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A</div> </div> </div>

- ①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합니다.
- ② 사실과 발언이 일치하도록 하여 참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③ 감정과 소망을 배제하고 말함으로써 발언을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④ 고립된 주관성을 뛰어넘어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 ⑤ 주장의 내용이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역대 ebs 수완 모고 선별 1(홀수년) 답

- 1) ④
 - 2) ④
 - 3) ②
 - 4) 가, 나, 르
 - 5) ③
 - 6) 가, 르
 - 7) ①
 - 8) ②
 - 9) ①
 - 10) ④
 - 11) ④
 - 12) ②
 - 13) ③
 - 14) ③
 - 15) ①
 - 16) ③
 - 17) 르, 르
 - 18) ⑤
 - 19) ⑤
 - 20) ④
 - 21) ①
 - 22) ④
 - 23) ③
 - 24) ③
 - 25) ②
 - 26) ③
 - 27) ⑤
 - 28) ②
 - 29) ④
 - 30) ④
 - 31) ④
 - 32) ④
 - 33) ③
 - 34) ②
 - 35) ⑤
 - 36) ④
 - 37) ⑤
 - 38) ③
 - 39) 가, 나, 르
 - 40) 나, 르, 르
 - 41) 가, 르, 르
- 원 문제가 오류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선지 Zola가 수정함.
- 42) ④
 - 43) ①
 - 44) ③
 - 45) ⑤
 - 46) 르, 르
 - 47) ①
 - 48) ③
 - 49) 가, 나, 르
 - 50) 가, 나, 르
 - 51) ②
 - 52) ③
 - 53) ③
 - 54) 가, 나, 르
 - 55) 르, 르
 - 56) 나, 르
 - 57) 가, 나
 - 58) 가, 르

- 59) ⑤
- 60) ④
- 61) 가, 나, 르
- 62) 르, 르
- 63) ⑤
- 64) 르, 르
- 65) ④ 발문 유형에 주의할 것! 수능장에서 감독위해도 흔들릴 필요 없음. 이런 것에 흔들리는게 바나나임. 바나나를 극복합시다!!
- 66) ④
- 67) ②
- 68) 가, 나, 르
- 69) 가, 르, 르
- 70) 가, 나, 르
- 71) ②
- 72) ①
- 73) ③